

# 총선, 5당 경쟁체제... 중도쟁탈전 예고

### 보수 통합 '미래통합당'·호남 통합신당 '민주통합당' 오늘 출범 안철수 국민의당 녹색 돌풍 재도전...실용 내세우며 표심 공략 3개 교섭단체 체제...2월 임시국회 선거구획정 협상 변수 부상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지형이 '5당 체제'로 재편되면서 광주·전남 선거구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통합해 신당을 창당하면서 불모지 호남 공략을 준비하고, 옛 국민의당 계열 야당들 역시 신당 창당에 전격 합의하면서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실제 한국당은 앞서 광주·전남 선거구에 중량감 있는 인사의 출마를 준비했고, 김부성 호남 출정 카드도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에도 일정부분 수정이 예상된다. 당장 여당인 민주당, 보수·중도 통합을 앞세운 미래통합당, 실용적 중도 정당을 내세운 국민의당 '중도층 잡기'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한국당은 새보수당과 손잡으며 출범할 미래통합당이 보수결집은 물론, '중도 표심'을 보강할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정권 심판론을 덧붙여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전략이다.

안철수 전 의원의 '국민의당' (가칭) 역시 민주당과 한국당을 '구대 정당'으로 몰아붙이며 중도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민주당 우세지역인 호남에서 민주당합당의 등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이다. 독자적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정의당 역시 "제3의 바람"은 정의당이 주도한다"고 강조하며 표 확장에 뛰어든 상태. 다만 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주당합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5당 구도'의 미세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래통합당과 민주당합당, 국민의당의 창당으로 야권 정계개편은 일단락되더라도 의회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격한 경쟁 속에 후보 단일화, 선거연대 등이 모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야권의 정계개편은 오는 17일 막 오르는 2월 임시국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민주당과 한국당의 양당 교섭단체 체제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주당합당의 3개 교섭단체 체제로 바뀔 예정이다. 민주당 129석, 미래통합당 113석(미래한국당 5석 제외), 민주당합당 21석(바른미래당 안철수계 탈당 전제)의 구도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정의당(6석) 등도 일부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 '교섭 테이블'의 변화는 2월 임시국회의 가장 큰 쟁점인 선거구 획정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창당대회 국민의당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16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열린 국민의당 광주시당창당대회에 참석해 지지자들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 “與 이겨야” 43% vs “野 이겨야” 45%

### 한국갤럽 총선 여론조사...민주당 지지도 37%·한국당 21%

오는 4·15 총선에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여당 후보가 승리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4%포인트 뛰어오른 5%였고, 국민의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각각 3%를 얻었다. 이어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2%),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이상 1%) 순이었다.

## 광주·전남 예비후보 여론조사 민심 왜곡 우려

### 조사기관, 대통령 직함 그대로 사용...민주 경선들과 달라

민주당 공관위(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경선 지역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의 예비후보 진영에서는 여론조사 비상이 걸렸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사용하는 대표 경력에 민주당 경선 룰과는 달리 적용되면서 실제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선 룰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여론조사에 예비후보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 이름과 청와대 등 상징적 기관 근무 경력이 있는 후보들은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 같은 경력이 없는 예비 후보들은 여론조사 결과가 민심을 왜곡해 경선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느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자체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3%로 집계됐다. 반면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5%로 나타났다.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1%포인트 오른 37%, 자유한국당은 1%포인트 오른 21%로 각각 집계됐다. 정의당은 5%였고, 바른미래당과 새로운보수당, 안철수신당(가칭)이 각각 3%를 얻었다.

민주당은 경선 여론조사(권리당원 50%+시민 50%)에서 문재인·노무현·김대중 등 전직 대통령 이름을 쓰지 않고 물의를 정했다. 광주·전남 등 문재인 대통령 지지세가 초강세를 띠고 있는 지역은 문 대통령 이름이 들어간 경력을 쓰는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하는 등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광주지역 민주당 오 예비후보는 "문 대통령 이름이 들어간 대표 경력을 사용할 경우, 지지율이 10% 포인트 이상 급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결과는 유권자들의 오판을 이끄는 등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예비 후보 측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라도 예비후보들에게 대통령 이름이 들어간 대표 경력의 선관위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층의 74%는 야당 승리, 진보층의 78%는 여당 승리를 기대했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달 조사보다 1%포인트 오른 25%를 기록했고, 이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포인트 오른 10%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총선 라운지

### 박지원 “초등돌봄 강화·목포대 의과대 유치 추진”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목포)은 16일 “교육 투자가 목포발전의 핵심”이라며 초·중·고교 교육, 국립목포대 의과대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유아문화시설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등 교육 관련시설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유입된다”며 “목포는 교육에 투자해야 하고 목포교육이 살아야 목포가 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대학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부주동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들었다. 그러면 “여수와 광양은 산업발전에도 인구가 감소한 반면에 순천은 늘고 있다”며 “여수는 국회 의원 둘에서 하나로 줄 수 있고, 순천은 하나에서 둘로 늘어날 수도 있다. 저는 이것이 교육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 김병원 “나주 금성산 지뢰 제거해 시민 품으로 돌려줄 것”

더불어민주당 김병원 나주·화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6일 “호남의 8대 명산 중 하나인 나주 금성산(해발 451m) 정상 주변에 묻혀있는 잔여 지뢰를 하루빨리 제거해 금성산을 안전하고 온전하게 시민들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금성산 지뢰 관련 자료를 내고 “1960년대 군사목적용 매설된 금성산 지뢰는 1853발이었다. 1970년대 말 매설지역 화재로 82발이 소실된 뒤,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1695발이 제거됐다”며 “현재 추정 매설지뢰 수는 76



발로 지역민들은 20년 전부터 국방부를 상대로 지뢰 관련 정보 공개 요청과 함께 안전대책을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나주시와 공동으로 국방부가 연내 잔여지뢰 76발 제거 작업을 마치고, 이르면, 군부대 이전도 지역사회와 공동의 노력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정의당 강은미 전국위원, 비례대표 경선 출마

강은미 정의당 전국위원이 17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다. 정의당 부대표를 지낸 강 의원은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유쾌한 발걸음”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번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나선다. 강 의원은 ▲차지와 분권 확대 ▲지방의회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청년세대를 위한 공공인대주택 공급 확대 ▲동일노동 동



일임금, 산별교섭권, 공정시장 3법등 불평등 해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의당의 역할 강화 ▲기후위기 대응 국가전략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민주 광주 경선, 신경전 최고조

### 광산갑 이용빈 예비후보, 이석형 선거법 위반 주장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본격화 하면서 광주지역 일부 선거구에서 불·탈법 선거 운동 논란이 불거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인사를 하는 유사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현장에서 이를 확인하고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영상을 촬영하던 이용빈 예비후보측 자원봉사자 박모씨에게도 거친 언행을 쏟아냈고 광산군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현장에 나타나도 도망가다시피 해산했다”고 덧붙였다.

16일 민주당 이용빈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광산갑 이석형 예비후보가 지난 14일 광주무역회관에서 열린 한 제2공용권 정기총회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민주당 코로나19 방침’을 정면으로 어겼다”면서 “이날 이석형 예비후보는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 장모씨 등 20여명과 함께 총회에 참석해 출입구에 일렬로 도열한 상태로 참석자들에게

이에 대해 이석형 선거캠프 관계자는 “해당 공용기관에서 있었던 우리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등은 3명 뿐이었고, 안면이 있는 해당 공용기관의 조합원이 함께 있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2020년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 공고

2020년도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ReSEAT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고경력 과학기술인 및 중소기업의 담당자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1. 사업목적  
○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과 청소년 과학교육을 통해 우수 성과 창출 및 미래 과학공부자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명: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2018년부터 위치한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노하우와 경험을 중소기업과 청소년들에게 전파하여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 및 과학공부자 지도를 목적으로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참여안내  
○ 참여자격: ① 고경력 과학기술인  
② 중소기업  
○ 참여방법: 참여자격 확인(중소기업, 고경력 과학기술인) → 참여등록(고경력 과학기술인) → 공고일 및 참여신청(중소기업, 고경력 과학기술인)

4. 신청방법  
○ 연구개발 지원 부문  
① 중소기업 기술멘토링 - 중소기업 - 접수기간: 2020. 2. 18(화) ~ 3. 20(금) - 신청방법: 중소기업 기술멘토링 참여신청 → 공고 조회 후 지원신청서 작성 → 과제 및 선정 종류선택 → 지원신청서 입력

5. 선정사  
○ 고경력 과학기술인 등록자 중 적격 심사를 통해 과제참여 대상자 선정  
○ 신청한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매칭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 필요성, 인력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기업과 고경력 과학기술인 매칭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http://www.koita.or.kr)에서 공고 및 선정 결과를 확인

6. 기타  
○ 신청 자료는 심사내용 활용되며 일체 반환되지 않음  
○ 각종 증명서류나 신청 자료의 허위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7. 사업안내 웹사이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사업공고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ReSEAT 프로그램 홈페이지(http://www.reseat.or.kr)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http://www.koita.or.kr)

8.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공관팀/지원센터 ReSEAT 프로그램 담당자  
- 전화: 02-3460-9038, 9063, 9064, 9038, 9176

9.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ReSEAT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진흥기금과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수행하고 있습니다.